윤봉근

김왕복

김해숙

박윤모

김현숙

정현애

교육

지식교육-인성교육 조화 열린 리더십 필요

/주제발표/ '광주 교육의 미래는' 윤봉근 광주시의원

교육현장이 심각한 위기다. 교실 붕괴, 공교육 붕괴, 성적 비관 자살, 왕따 피해 학생 투신 등 섬뜩하고 충격적이다. 전문가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단순 암기능력을 기를 뿐 창의력과 상상력, 인간적 감수성,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도의적 심성·예술적 감각·사회적 의식을 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은 좋은 교육에 있다. 좋은 교육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조화하는 것이다.

좋은 교육의 핵심요소는 좋은 교사다. 자기주도 학습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이끌어갈 사람은 교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현실은 좋은 학교, 좋은 교사가 설 땅이 너무 좁다. 좋은 학교에도 문제학생·문제교사가 존재할 수 있고, 좋은 학생 혹은 좋은 교사 사이에도 갈등과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길러줘야 한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는 교육이 진정 좋은 교육이다.

광주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올바른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교육의 목적과 교육 종사자·수요자의 욕구를 수렴해 공유점을 찾아야 한다.

또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구성원과 교육 수요자의 기대와 역량을 한데 끌어 모아 목표에 이르도록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열린 리더십은 다양한 경험과 유연한 사고로부터 발휘될 수 있다.

/지정토론/

우수학생 타지역 유출 심각… 대책 세워야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전인적 인간상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또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좋은 교사의 중요성,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추상적인 통합·리더십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해야 한다. 먼저 교육현실을 진단해 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이 개발돼야 한다.

광주교육은 위기다. 학력 저하가 너무 심각하다. 또 중학교 3학년 우수 학생들의 다른 지역 유출도 상상을 넘는다. 상산고 등 다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에만 올해 48명이 진학하는 등 매년 300여명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교육재정도 열악하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도 따오지 못했다. 비슷한 규모의 대전교육청과 광주의 특별교부금 차이는 100억원에 달한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부의 차별도 있었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지 못한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다. 교육청과 정치권이 중앙정부와 교감해 교육재정 확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 운영 자율권 학교장에… 선의의 경쟁 유도

김해숙 숭의중 교장

'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상이 많다. 교육재정 부족도 그 하나다. 100억원 가까이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면서 5년 주기로 리모델링하던 과학실험실이 10년 주기로 해야 한다.

학교 운영은 학교장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80개가 넘는 중학교가 교육청의 규제로 천편일률화된다면 광주교육은 후퇴한다. 학교장에 따라 학교를 바꾸고, 모범사례는 벤치마킹해 확산해야 한다. 또 경쟁보다 협동이 강조되는 보편적 교육도 좋지만 적당한 스트레스가 동반하는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교사들의 업무도 줄여야 한다. 토요 휴무가 정착됐지만 수업시간은 줄지 않고 평일로 넘겨졌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숨쉴 틈도 없어졌다. 수업에 지쳐 학생지도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학교폭력 예방도 힘겨워졌다. 그런데 시간제 교사를 늘린다니 말이나 되는가.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어도 학교폭력이 일어나는데 반나절만 하는 시간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케어하겠는가.

▲토론=강경환 광주시레슬링협회 회장

학교가 각박해졌다. 교사는 고발자로 전락했다. 학생들이 싸우면 예전엔 교사가 혼내고 화해시켰지만, 지금은 먼저 경찰에 고발하고 또 교육청에도 고발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화

전라도 특유의 '깡', 문화 에너지로 승화해야

/주제발표/ '지역콘텐츠 개발 방향' 박윤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광주·전남은 '깡'으로 대변된다. 끈질긴 전라도의 '깡'이 생명력을 분출한다.

'깡'은 독특한 지역정신을 형성했다. 동학혁명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바로 잡고 구국으로 나아가는 시민·애국정신을 발휘했다. 또 신자유주의의 극심한 경쟁구도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깡'은 긍정적으로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협심과 정의감이다. 전라도 기질이 뭉치면 의리와 힘이 생긴다. '깡'을 문화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애호정신을 드높여야 한다. 문화예술 애호정신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에너지와 기본 인프라의 기반이다. 이밖에 순수예술 창작인들의 예술정신은 문화콘텐츠의 기본 에너지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외관도 중요하지만 채울 콘텐츠는 더 중요하다. 5월정신과 문화애호정신, 예술정신이 담긴 광주의 정신사적 배경을 콘텐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을 시민이 즐기고 그 과정에서 다시 콘텐츠로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작고 소박한 것이라도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것 자체가 콘텐츠가 돼 외부사람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콘텐츠는 5월 정신을 승화해야 한다. 공연예술의 '푸르른 날에', '빛골 아리랑' 등이 대표적이다. 미술은 미디어아트·신소재·LED를 이용한 입체회화가 활발하다. 국악도 판소리·창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뮤지컬·국악 등 전용극장의 설립을 건의한다.

문화동 시화마을, 양림동·충장로 등 거리문화, 국립공원 무등산, 음식문화 등 광주의 일상과 문화적 자산을 콘텐츠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정토론/

음식·판소리 등 문화 접목한 공간 만들자

김현숙 하나항공여행사 대표

문화는 실용이다. '문화' 하면 파티가 연상된다. 광주에서 문화콘텐츠를 얘기하면 5·18이 먼저 거론된다. 하지만, 문화는 5·18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올해 초 전국 교사 300여명을 초청, 광주 투어를 했는데 갈만한 곳이 없었다. 음식문화가 발달하고 남종화와 판소리의 뿌리인데도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문화를 접목한 레스토랑 등이 절실하다. 많은 시민들이 KTX의 개통을 우려한다. 의료·교육·문화 등 수도권 빨림 현상을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수도권의 자본과 문화를 광주로 뺏어올 수도 있는 기회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아 일본 도쿄를 찾는 세상이다. 문화 향유에 돈을 쓰는 부유층들이 늘고, 국민소득이 2만~3만달러가 되면 문화를 거부할 수도 없다.

서둘러 전라도 음식과 판소리 등의 문화와 이를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서울사람을 광주로 불러모을 수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한다. 문화전당 투어 상품 개발을 제안한다. 스코틀랜드의 성축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다. 문화전당도 스토리를 입혀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시민 힘모아 CT연구원 설립 견인

정현애 광주시의원

광주를 문화도시라고 부른다. 문화도시가 뭔가. 정부와 광주시·광주시민 모두가 문화도시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알아야 성장시킬 수 있다. 광주는 10년 전부터 문화도시 사업에 주력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도시사업이 삐걱이고 있다.

CT(문화산업)연구원 설립이 문화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들어 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이 견인해야 한다. CT연구원이 설립되면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가 풍성해진다. 여기에 문화도시추진단과 광주시, 혁신도시에 입주할 콘텐츠진흥원이 연계·소통하면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일 것이다.

국제교류도 빼놓을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경제협력 등을 강화해 아시아 전체가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

▲토론=강경환 광주레슬링협회 회장

문화도시 광주에 문화예술전문대학 설립을 제안한다. 광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전문 대학을 유치해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박석인 극단코스모스 대표

전문 공연장 건립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민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광주시의 공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